
저자 (Authors)	윤여진
출처 (Source)	여성우리 (54) , 2015.12, 13-18(6 pages)
발행처 (Publisher)	부산여성가족개발원 BUSAN WOMEN and DEVELOPMENT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89327
APA Style	윤여진 (2015). 미디어 속에 나타난 성 고정관념. 여성우리(54), 13-18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4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미디어 속에 나타난 성 고정관념

윤 여 진 부산일보 기자

“여성이 가부장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만 진정한 양성평등을 향한 싸움은 여전히 어렵다.”

여성인권 운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 원로 영화배우 제인 폰다가 최근 한국의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지 꽤 지났지만 양성평등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난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성적은 참담하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5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에 그쳤다. 경제 활동 참여와 기회 순위는 125위로 2006년(96위)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여성 임원 비율은 단 2.1%다. 정치 분야(101위)도 하위권이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여성 의원 비율은 15.5%로 세계 평균(22.5%)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음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 양성평등을 외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지극히 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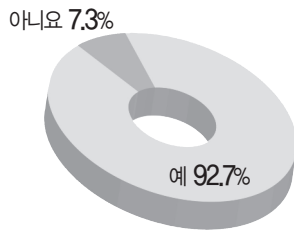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 세대를 반영하는 미디어에서는 양성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기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혐(여성 혐오)’ 미디어 주 단골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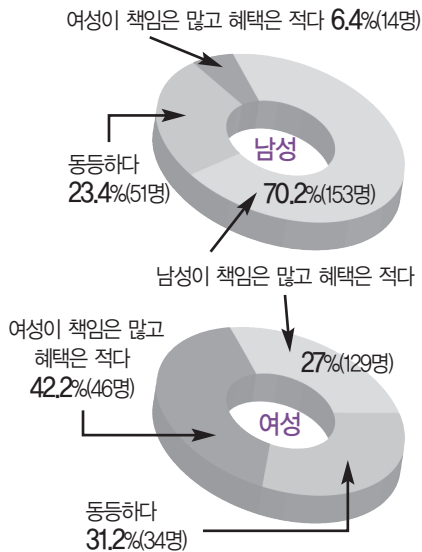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일명 ‘여혐(여성혐오의 준말)’의 출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엄마’도 여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공장소에서 자녀들을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등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는 엄마들을 이른바 ‘맘충(엄마(mom)와 벌레(蟲)를 합친 말)’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

김치녀·김치남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



양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 부산일보(2015. 7. 4)

시대 트렌드를 발빠르게 보여주는 미디어는 이같은 여혐을 심심찮게 다룬다.

MBC PD수첩은 여혐 현상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다는 명목으로 김치녀 논란을 조명(2015년 8월 5일 방영)하다 작위적인 동영상 방영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헤럴드경제는 '맘충과 노키즈존' (2015년 8월 28일)을 통해 맘충 논쟁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YTN은 '여혐? 남혐? 인터넷에서는 남녀 '댓글전쟁' (2015년 12월 2일자)으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녀 성대결 구도를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에서 빈번하게 다뤄지다보니 오히려 미디어를 통해 여혐을 접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는 통계로도 증명된다. 부산일보는 2015년 7월 4일자 6면에 '경쟁에 지친 젊음, 시스템 대신 이성에게 칼을 겨누다'라는 제목으로 1개면 전체를 통해 왜 2030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게 됐는지 상세히 풀어내면서 흥미로운 그래프를 실었다.

시민 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2명 중 1명(51.6%)은 대중매체 등에서 여성 비하나 여성 혐오를 다룬 콘텐츠를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 시민 10명 중 9명(92.7%)은 '김치녀(허영심 많은 여성)'라는 단어를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는 '된장녀·김치녀·맘충... '여혐' 부추기는 '막가파 방송' (2015년 10

월 24일)이라는 기사를 통해 방송 콘텐츠 일부가 '여혐(여성 혐오)'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된장녀나 김치녀 등 일부 물지각한 여성들의 행태를 지적인 표현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며 한국 여성 전체의 성향인 것처럼 여성의 이미지를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힙합 프로그램과 스탠딩 개그 프로그램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개그우먼의 외모를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는 빈도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오히려 후퇴하기도

국내 시장 및 준 시장형 30개 공기업 여성 채용 현황

(단위 : 명, %)

공기업	2012년		2015년		여성채용 비율	
	전체	여성	전체	여성	2012년	2015년
한국동서발전	163	32	15	-	19.6	0.0
울산항만공사	13	4	7	-	30.8	0.0
대한석탄공사	16	-	6	-	0.0	0.0
한국조폐공사	24	6	3	-	25.0	0.0
한국감정원	33	9	3	-	27.3	0.0
인천항만공사	38	14	2	-	36.8	0.0
한국광물자원공사	35	17	2	-	48.6	0.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2	6	1	-	27.3	0.0
부산항만공사	17	8	1	-	47.1	0.0
한국관광공사	30	19	1	-	63.3	0.0
한국철도공사	412	97	-	-	23.5	-
한국가스공사	227	63	49	2	27.8	4.1
한국토지주택공사	486	140	10	1	28.8	10.0
한국서부발전	170	43	73	9	25.3	12.3
한국남부발전	126	23	69	10	18.3	14.5
한국중부발전	115	28	114	17	24.2	14.5
한국수력원자력	697	118	820	131	16.9	16.0
한국도로공사	137	31	176	31	22.6	17.6
한국수자원공사	222	40	165	30	18.0	18.2
한국남동발전	160	22	80	15	13.8	18.2
한국지역난방공사	99	20	64	15	20.2	23.4
한국전력공사	683	214	616	151	31.3	24.5
여수광양항만공사	2	-	8	2	0.0	25.0
한국공항공사	53	17	77	21	31.6	27.3
해양환경관리공단	43	7	11	3	16.3	27.3
주택도시보증공사	21	8	41	16	38.1	39.0
한국마사회	28	6	60	24	21.4	39.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1	14	14	6	45.2	42.9
인천국제공항공사	72	28	10	5	38.9	50.0
한국석유공사	97	36	4	2	37.0	50.0
합계	4,272	1,069	2,501	490	25.0	19.6

자료 : 부산일보(2015. 12. 2)

여혐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은 사회적으로 쉽게 공격당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정책 역시 여성에 호의적이지 않다.

부산일보는 2015년 12월 2일자 인터넷 보도를 통해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기업의 여성 신규채용은 19.6%(490명)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25.0%)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여성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도 11곳에 달했다. 여성 임원 수는 2명에 불과하고, 부장급 여성 직원이 전무한 곳도 10곳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기업 여성 임원을 30%로 높이겠다는 법률 개정안까지 나왔지만 실제 신규 채용과 승진에선 여성 홀대가 오히려 더 심해진 셈이다.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정책도 마찬가지. 부산일보의 '30대 기혼여성 37.5% 일하다 그만둔 경단녀(경력단절여성)' (2015년 12월 3일)에 따르면 30대 기혼여성 10명 중 4명 꼴로 경력이 단절됐다. 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단녀는 오히려 14.9% 늘어났다. 출산 및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주부 661만 명 연금 차버린 국회’ (2015년 11월 26일)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전업주부가 되는 바람에 국민연금 대상에서 배제돼 추후 납부할 길이 막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여성들을 다뤘다. 여야 합의 불발로 ‘전업주부 차별 철폐’는 또다시 숙제로 남게 됐다.

경남신문은 2015년 11월 27일 양성평등기금폐지 조례개정안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양성평등기금폐지를 들고 나와 도내 여성의 취약한 삶을 변화시키려는 최소한의 기준마저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여 승무원의 키를 제한’ (2015년 6월 16일자 서울신문)하거나 ‘예쁜 알바를 뽑는다’ (2015년 9월 7일 KBS)거나 ‘면접에서 신체 사이즈를 질문’ (2015년 10월 20일자 내일신문)하는 등 성차별 보도는 부지기수다. 올해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은 오히려 후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드라마, 뉴스, 예능의 성 고정관념 여전

그렇다면 미디어 자체의 양성평등은 어느 정도일까.

드라마 속 인물들의 경우 10명 중 9명은 남성이 전문직을 맡아 성 고정관념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일보는 2015년 11월 18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2015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일환으로 지난 9월 서울YWCA(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와 함께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1사(JTBC), 케이블 1사(tvN) 등의 드라마부문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도했다.

충청일보의 모니터링 결과 보도 내용에 따르면 드라마 주인공 직업군의 경우 기업 CEO나 전문직 남녀 비율은 남성(91%)이 여성(9%)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성비 불균형 현상이 뚜렷했다. 충청일보는 또 일부 드라마의 경우 자신의 성적 매력을 이용하는 부정적인 캐릭터의 여성,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당연시하는 남편, 남아선호사상을 가진 할머니 등의 캐릭터를 등장시켜 여성을 수동적 객체로 표현해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보도했다.

뉴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디어오늘은 2015년 9월 30일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지난 8월 초 지상파 3개사, 종합편성채널 4개사, 보도전문채널 2개사 등 총 9개사의 뉴스보도를 분석한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를 보도한 것.

뉴스 분야별 양성 앵커 보도

(단위 : 명)

방송사	구분	정치	경제	과학	사회	문화	생활 정보	교육	기타	합계
KBS	남성	13	11	1	26	2	4	1	10	68
	여성	6	13	1	28	3	2	1	23	77
	함께	2			2					4
MBC	남성	8	10	2	20	1	9		4	54
	여성	1	8	1	21	4	11	3	12	61
	함께	1	2							3
SBS	남성	18	9	1	24	4	4		13	73
	여성	15	9		17	12	8			61
	함께	1								1
JTBC	남성	17	11		24	1	6	1	6	66
	여성	5	1	3	19	5	1		4	38
	함께		1						4	5
MBN	남성	10			37	2	1		4	54
	여성	12			24	3	3		4	46
	함께									0
TV조선	남성	18	14		30	5	3	3	6	79
	여성	8	4		16	1	3	1	6	39
	함께	8	3		8	2	2		1	24
채널A	남성	12	3		22	2			10	49
	여성	13	1		20	3			4	41
	함께	7	2		19	6			2	36
YTN	남성	17	10	0	9	3	2		5	46
	여성	16	16	1	10	2	8		3	56
	함께	3	8	0	3	0	2		1	17
연합 뉴스TV	남성	5	5		13	2	5		5	35
	여성	14	8	1	25	1	20		35	104
	함께	9	7		5		5		2	28

자료 : 미디어오늘(2015. 9. 30)

보도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KBS ‘여결5’ 등 여성 중심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꾸준히 방영됐지만, MBC every1 ‘무한걸스’ (2013) 이후 여성 출연자들 간 팀워크가 돋보이는 예능 프로그램의 명맥은 끊겼다. 기사에는 여성 예능인 뿐 아니라 스튜디오물에서도 여성 MC는 물론 여성 고정 패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남성 출연자 중심의 견고한 틀 속에서 여성 출연자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성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오히려 여성 출연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결과 보도에 의하면 뉴스 진행에서 오프닝을 남성앵커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15건에 달했지만 여성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경우는 4건에 그쳤다. 남성 앵커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횟수가 여성 앵커에 비해 4배 가량 많은 셈이다. 남성 기자가 취재 보도를 하는 비율은 전체 966건 중 624건(64%)으로, 여성 기자보다 높았다. 정치 분야를 남자 기자가 취재하는 경우도 많았다.

미디어오늘은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서도 성비 불균형 현상은 여전했다고 보도했다. 여성은 전체 인터뷰 대상자 1141명 중 341명으로 30%에도 못미쳤다. 특히 전문직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서도 여성은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속에서조차 여성의 지위는 고정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성의 보조역할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예능도 마찬가지. 미디어오늘은 2015년 10월 5일 ‘해피투게더는 왜 박미선을 버렸나’라는 기사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불안한 입지를 상세히 보도했다.

일부 언론, 해법 찾기 고심

여혐 등 성대결 보도가 판을 치고 양성평등 정책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자체의 양성평등도 요원한 현실 속에서 양성평등은 이상으로만 그칠 것인가.

양성평등을 하루 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사회구조는 물론 시민의식과 문화도 바뀌어야 하는 만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양성평등을 위한 방법을 찾아나선 언론도 있다.

울산매일은 2015년 7월 3일 양성평등 관련 간담회를 통해 양성평등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학교교육현장에서의 바람직한 양성평등 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울산매일은 간담회를 통해 매년 고학력 여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정치참여는 후진적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함을 지적했다. 의식변화가 수반된 법제도 정비도 이뤄져야 시민 사회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대중매체에서 무분별한 여성 차별이 이뤄지는 등 잘못된 답습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학교현장에서 미디어에 대한 양성 평등교육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식전달 교육보다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교육법이 꾸준히 개발돼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양성평등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촉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여성신문 역시 지난 11월 22일 양성평등 국가포럼 개최 보도를 통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여성신문은 남녀평등기본법을 제정한 프랑스를 예로 들어 법·정책·예산·제도화 모두 여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가정 양립 정책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는 등 젠더 관점과 가족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여성우리**